

“농작물 고온 피해 최소화해야”

농진청, 남부지방 폭염에 따라... 과실 직사광선 직접 받지 않도록 가지 유인 한낮에는 미세살수장치 가동 나무에 물 뿌려야 · 가축의 경우 축사 내부 온도 낮춰야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현재 중부지방의 집중호우와 남부지방의 고온(폭염) 현상과 관련해 농작물과 가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응 강화를 4일 당부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중부지방은 8월 상순에도 많은 비가 예상되고, 남부지방은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을 받아 낮에는 고온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부지방에서는 비가 내리는 중에는 농작물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비가 그친 후 배수로 정비와 병해충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 밭작물은 도열병, 탄저병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물별로 등록된 약제를 구비해 농약안전사용지침에

따라 방제한다.

또 장기간 강우로 생육이 불량한 경우 비료를 앞에 뿌려주어(엽면시비) 생육을 정상화시킨다.

남부지방에서는 장마 이후 많은 일사량으로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 농작물이 말라죽거나 영양소 결핍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가축의 경우 생산성이 떨어지고 심하면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

농작물의 경우, 과실이 직사광선을 직접 받지 않도록 가지를 유인해 잎으로 가려주고, 기온이 높은 한 낮에는 미세살수장치를 가동해 나무에 직접 물을 뿌려준다.

고령지 배추는 호흡과다로 속이 들 어치기 않는 결구불량이나 칼슘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물을 준다.

고온에서 콩은 꼬투리 형성이 미흡하고, 고구마는 덩이뿌리가 잘 자라지 못하므로 자중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장비를 활용해 토양이 적절 한 물기를 머금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가축은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는데,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는 평상시보다 사육 밀도를 10~20% 정도 낮추고, 단열재를 보충해 축사 내부의 온도 상승을 막는다.

밀폐된 축사의 환기시설을 점검하고, 특히 환기팬은 주기적으로 청소해 이물질로 인한 성능 저감을 예방한다. 폭염이 지속되는 기간에 예상치 못한

정전으로 가축 폐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을 위해 정전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인의 안전이다.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규칙적으로 물을 마신다.

농작업 시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 착용과 바타이 잘 통하는 옷을 입는다.

온열질환자 발생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목, 겨드랑이 등에 차가운 물병을 대어 체온을 식혀 준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충섭 과장은 “중부지방은 13일까지 집중호우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침수 대비와 안전에 유의하고, 남부지방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농작물에 충분한 물 공급과 축사 시설 내 통풍·온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농협은행 전북본부 집중호우 피해고객 금융지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역주민, 중소기업에게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주민, 중소기업으로 피해액 범위내에서 기업은 최대 5억원, 개인은 최대 1억원까지 신규자금이 지원되며 최대 1.0% 이내의 (농업인 최대 1.6%이내) 대출금리 감면과 최장 12개월의 이자납입 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대출을 이용중인 대상자의 대출이 만기가 도래할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심사결과·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기한연기가 가능하며, 최장 12개월까지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장기요 본부장은 “상반기 코로나19 및 이상저온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도내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집중호우로 인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적기에 자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전북대병원 모바일 앱 개통 1년만에 47만건 접속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고객용 스마트 모바일 앱’ 오픈 1년 간 접속 횟수가 47만 건에 이르는 등 환자들의 큰 호응 속에 병원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병원은 하반기 중에는 제증명 발급서비스 신설 및 실손보험 청구 전체 보편화 확대 등 고객이용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4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고객용 스마트 모바일 앱’ 오픈 이후 현재까지 1년 동안 하루 평균 200여명 꼴인 7만6,610명이 방문했으며, 이들의 누적 접속건수가 47만2,388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 1년간 전북대병원 모바일 앱 이용현황을 보면 본인진료일정 확인이 14.2%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예약(12.9%), 의뢰진 찾기(11.1%), 예약조회 및 취소(7.6%), 검사결과조회(5.2%)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도 고객들은 앱을 통해 진료비결제, 실손보험청구, 처방약조회, 수납내역확인, 진료시간표확인, 진료도착확인, 건강수첩 등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골고루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측에서는 모바일 앱 활용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고객서비스 증진 차원에서 모바일 제증명서 발급 및 실손보험 청구 확대 등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전북대병원 모바일 앱을 설치하려면 안드로이드 또는 구글 앱스토어에서 ‘전북대학교병원’을 입력하고 다운로드하면 된다.

/김윤성 기자

완주 삼봉 웰링시티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

LH전북본부,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인접 교통 환경 최적 전주까지 10분 내외의 접근 가능

LH전북본부(본부장 권창호)는 완주 삼봉 웰링시티 내 마지막 분양토지인 도시지원시설용지 16필지를 공급중이라고 4일 밝혔다.

완주삼봉 웰링시티는 이미 근생, 상업, 준주거, 점포겸용·주거전용 단독에 대한 분양을 100% 완료됐고, 민간 매각이 완료된 공동주택용지 4개블럭도 하반기 분양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족도시 완주의 미래 중심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LH가 완주군 산례을 수계리 일원에 조성중인 완주삼봉 웰링시티는 약 915천㎡ 규모의 부지에 주거와 상업은 물론 초·중학교와 공립유치원, 공원 및 소방서, 보건소, 파출소, 도서관, 농협마트 등 각종 공공시설과 행정기관이 결합된 미니 신도시급 스마트시티로 조성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98%이며, 내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

완주삼봉 웰링시티는 반경 4km이내에 예곡시터, 삼례C와 익산IC 및 익산정수간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는 등 최적의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반경 10km 이내에 전주 서신동 이마트와 롯데백화점 및 완주일반산업단지, 완주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 9개와 대학교 3개가 위치하고, 전주지역까지 10분 내외로 접근이 가능한 직주 근접



완주삼봉 웰링시티 조감도

형 입지도 장점이다.

뿐만 아니라, LH는 지구 내 다양한 근린공인 조성을 물론 단지 서측에 약 7만3,000㎡ 면적의 대규모 명품 편백나무 숲 등을 조성해 완주삼봉 웰링시티를 쾌적한 그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완주소방서와 완주군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가 입주해 운영 중이며, 향후 완주삼봉 웰링시티가 완주군 제2의 행정타운으로의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단지 내 공동주택 용지 7개 블럭 중 LH가 자체 건설하는 AI(행복, 국민, 영구, 1,092호, 입주개시)블록은 이미 준공 완료해 입주중이고, 현재 공사중인 A2블럭(신혼희망타운 등,

820호)과 A3블럭(행복, 450호)은 21년 말 준공할 예정이며, S1블럭은 내년 초 사업승인 후 분양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근 단지 내 첫 입주가 시작된 AI블럭(행복, 국민, 영구)의 입주인 지원을 위해 LH Q+(LH 큐플러스)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는 LH전북본부는 완주군과 협의해 편의시설 등을 최대한 신속히 보완하는 등 단지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완주삼봉 웰링시티 내 일부 잔여토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 LH 전북본부 완주삼봉PM사업단(263-8825~6)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김윤성 기자

도내 2개사 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전북조달청, 태평양 ‘일체형 HDPE 흡음형 방음벽’ 신우종합철강 ‘아라미드 복합수지 PE 3층 피복강판’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도내 업체 ‘주식회사 태평양’과 ‘신우종합철강 주식회사’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군산 소재 주식회사 태평양(대표 김태수)의 ‘일체형 HDPE 흡음형 방음벽’은 소음 저감을 위해 도로변, 철도변 및 아파트 주변도로 등에 설치되는 방음판으로 일체형과 밀도 폴리에틸렌 구조로 제작해 구조적 강성이 우수하며 재활용 원료 사용을 통한 친환경성 확보가 가능한 일체형 제품이다.

신우종합철강 주식회사(대표 김현준)의 ‘아라미드 복합수지 PE 3층 피복강판’은 강판의 내외부에 도료로 코팅하여 부식력과 내식성 및 내구성, 내약품성 등의 물성을 향상시키고, 외부 피복 손상을 방지한 제품으로 상수도, 하수도, 송유관, 가스관 등에 사용

된다.

한편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 연간 구매액은 약 3조 2천억 원이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 등에 지정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나라장터 엑스포, 해외조달 시장개척단 등 조달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 프로그램도 지원받는다.

이주현 전북조달청장은 “우수조달물품 생산 중소기업들이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후에도 기술개발과 품질혁신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과 “도내 공공기관에서 지역 우수기업의 육성을 위해 도내 우수조달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성 기자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계도활동 재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한철술)은 관세청과 협업해 코로나 19 확산으로 중단했던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재개하고,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운영 중인 합법 목재교역 촉진 제도를 지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목재생산자와 유통업자의 의식을 향상시키고, 목재제품의 품질 수준을 높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15개 품목에 대해 생산·유통·취급하는 업체가 대상이며, 지난 2018년에는 단속 및 계도 269건, 시료 채취 80건, 2019년 단속·계도 350건, 시료 채취 74건(협업 단속 포함)을 진행했다.

합법 목재교역 촉진제도란 목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생산국가, 별채지, 수종 등에서 합법적으로 별채된 것을 입증하는 제도로, 수입목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국내 목재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한철술 서부정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를 고려해 단속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우리들의 경제이야기’

전은 장학문화재단
JB청소년 유투버 공모전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규)은 8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제2회 우리들 경제이야기 JB청소년 유투버 공모전(UCC)’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우리들 경제이야기 JB청소년 유투버 공모전(UCC)’은 유튜브 세대인 청소년들이, 사회 및 경제 교과 서상의 경제 개념을 스스로 UCC 제작 및 활용을 통해 경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이번 공모전은 도내 중·고등학교 생 및 동일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중·고등학교 사회 및 경제 교과의 경제개념을 활용해 팀 단위로 UCC를 제작해 8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작품길이는 2분에서 4분 이내여야 한다.

대상 1개팀에게는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표창장과 장학금 100만원, 최우수상 2개팀에는 각 50만원, 우수상 3개팀에는 각 30만원을 수여

한다. 공모전 결과는 10월중 수상자 앞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된다.

참가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전북은행 홈페이지(www.jbbank.co.kr)에서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작성해 우편 혹은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사회공헌부로(☎063-250-7495) 문의하면 된다.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김영규 이사장은 “공모전 심사는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노력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할 예정”이라며 “재단에서는 앞으로도 공모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니 도내 중·고등학교 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공동투자형 과제 지원

전북중기청, 31일까지 신청접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지원 신청서를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과제는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해 가치(공급) 사슬의 경쟁력 확보와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투자기업의 투자동의를 받은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 되며, 투자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R&D출연금을 조성한 대기업·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이 역할을 맡게 된다.

참여기업은 기술개발 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위탁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공동개발기관은 투자기업의 1차 벤더(공급업체)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이어야 한다.

지원분야는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제품이거나 투자수요가 있는 B2C(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 분야 제품)와 소재·부품·장비분야이다.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의 최대 80%한도 내에서 최대 3년, 12억원 이내며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하면 되고,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및 IP-R&D전력(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함)을 지원한다.

참여 신청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ec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달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1357콜센터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2-388-0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성 기자



인삼밭에서 병해충을 방제하는 모습.

전북농기원 “여름철 인삼 병해충 방제를”

전북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은 긴장마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인삼점무늬병, 탄저병 등에 대한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고, 강풍으로 쓰러지거나 파손된 해가림은 조기에 복구하여 고온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인삼 후기 생육 관리를 위한 포장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삼은 고온에 약해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 병해 발생이 심한 작물인데 특히 고온기에는 인삼 생육이 약해져 점무늬병과 탄저병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인삼 재배농가는 관행적으로 8월 상순이후부터는 병해 방제를 하지 않고 있어, 8월 상순 이후부터 병해발생이 증가하여 조기낙엽에 의한 수량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음으로 8월 상순 이후 생육 후기 철저한 병해 방제를 당부했다.

또한 여름철에는 해가림 시설의 불량으로 강한 햇빛에 의한 지상부 고온장애와 지온상승 및 강우에 의한 과습으로 인한 뿌리의 양분흡수가 원활하지 않아 지상부가 일찍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강풍으로 쓰러지거나 파손된 해가림시설은 조기에 복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삼의 뿌리 발육이 가장 왕성한 시기는 8월 상순부터 10월 하순까지로 이 시기에 병해나 고온장애가 발생해 지상부가 조기낙엽되거나 일찍 고사하면 뿌리 생육이 불량해 인삼 생산성이 떨어지므로 인삼 후기생육을 위한 철저한 포장관리를 당부했다.

/익산=정영원 기자